

송기헌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제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 출석을 100%, 대표발의 법안 32건, 통과법안 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17년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위원', '더불어민주당 2017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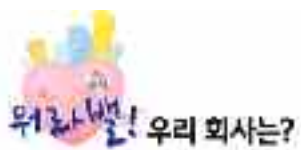
송기헌 의원은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며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시현 기자 jsh@**

a인사

한국전력

(1직급 이상) ◆서울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 원영진 ▲서대문은평지사장 최태일 ▲강북성북지사장 최상철 ▲관진성동지사장 장준희 ▲마포용산지사장 박기환 ▲노원도봉지사장 이종영
- ◆남서울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이정학 ▲강서양천지사장 송현진 ▲관악동작지사장 안광석 ▲강동송파지사장 신창훈 ▲서초지사장 권태준
- ◆인천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허연 ▲부천지사장 노일래 ▲김포지사장 고영래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지사장 신용석 ▲파주지사장 김충환
-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반석걸 ▲안양지사장 유현호 ▲안산지사장 백선호 ▲성남지사장 권태호 ▲오산지사장 손준구 ▲평택지사장 윤상천
- ◆강원지역본부 ▲강릉특별지사장 한명관 ▲원주지사장 조용욱 ▲충북지역본부 ▲동청주지사장 이경섭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문창배 ▲대전유성지사장 고현욱 ▲천안지사장 금병선 ▲서대전지사장 허태오
-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장 이건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김대식 ▲여수지사장 진장호
-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사장 곽병철 ▲경주지사장 이민하 ▲남대구지사장 박정석 ▲서대구지사장 윤창희 ▲경북지역본부 ▲구미지사장 서상일
- ◆부산울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박종명 ▲울산지사장 김완호 ▲해미지사장 김준식 ▲동래지사장 정용수
- ◆경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전중구 ▲진주시사장 하희봉



(12) 부산교통공사 김욱 대리 소셜미디어 부산공감 편집장

"사람들은 TV나 신문으로는 중앙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SNS가 맛집이나 데이트 코스 등 특정 분야에 머물렀다면 부산공감은 시사 콘텐츠를 비롯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이번 주 위라벨의 주인공, 부산교통공사 김욱 대리의 취미는 특이하다. 운동, 봉사활동이 아니고 시사콘텐츠 '부산공감'의 편집장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공감은 정식 언론은 아니지만 5만 7000명의 팔로워에 이슈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200만명의 사람들이 보는 부산지역의 인기 미디어이다.

김욱 대리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다.

근무하는 직장이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쉬는 날 잠만 자기에는 그렇고, 낯시 하는 것도 귀찮고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 토론방에서 놀면서 글을 가끔 적었는데 "글 참 재미있게 적으시네"라는 칭찬을 자주 받게 됐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해서 이슈도 논하고, 개인적인 글을 적고 싶어 블로그를 만들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블로그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다가 지금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 좋아하는 사람이 본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취미입니다. SNS가 됩니까? 연결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가까이 연결"

맛집·명소 외 시사콘텐츠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 공유 '보람'

우리 동네 아는 사람끼리 연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산공감 인기 콘텐츠는 무엇이나 질문에 지역의 '날씨'와 '명소' 관련 이야기라고 말한다. 부산 사람 입장에서 서울 날씨의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동태, 사상, 서면 등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의 특정 지역 날씨에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큰일 났네, 오늘 폭우로 학교 못 가겠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조회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공감에서 인기 있는 '명소(?)'라고 하는 곳은 해운대, 태종대와 같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부산 서면에 있던 롯데리아가 사라졌다'는 기사도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서면 롯데리아를 명소라

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잡았던 곳이며 부산의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을 이어주는 하나의 공간이었으며 관심거리였다.

그는 "롯데리아 폐점 소식이 부산공감에서는 유명 연예인 연애 이야기보다 더 활발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분명히 나름대로 수요는 있지만 기존 언론에서 다루기 애매했던 지역 소식,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소셜미디어는 강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부산공감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 "수만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지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으며 사람들을 움직여 사회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

백운규 산업부 장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방문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0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동차업체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부산공장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산업부 장관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방문은 다 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민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시설로서 세계 정상 수준의 생산성을 갖춘 부산공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백 장관은 현장에서 도미니 시뇨라 사장과 르노삼성차 주요 임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약 1시간 동안 수출 상황 점검과 공장 가동 상태 등을 둘러봤다.

백 장관은 "2012년 경영 위기 당시에 혁신적인 공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노사화합으로 세계 최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룬 르노삼성차의 생산현장을 보고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르노삼성차의 미래 전략 차종 개발 지원과 수출 피해 최소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igw90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에 김석철 박사 취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제5대 원장에 김석철 박사가 취임했다.



KINAC은 10일 김철석 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석철 원장은 취임식에서 "KINAC은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 왔다"며 "국제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국제규범 준수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해 KINAC을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철 선임 원장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자력 안전·안보분야 국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원자력 규제 및 핵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재혁 기자 jrh@**

넥상스 그룹, 크리스토퍼 게랑 신임 CEO 선임

글로벌 전선 전문기업 넥상스는 새로운 그룹 CEO로 크리스토퍼 게랑 씨를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게랑 CEO는 46세로, 1997년부터 넥상스에서 근무해왔다. 2014년부터 유럽지역 및 통신/데이터 및 파워 액세서리 사업부 총괄부사장, 최고경영진(Management Board) 등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기간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발휘하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지난해 넥상스의 신 전략계획

'성장을 향하여' 수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넥상스 관계자는 "크리스토퍼 게랑 CEO는 강직하고 의욕적인 인물로, 그룹에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다. 특히 조직에서 존경받는 리더이자, 유럽 사업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변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그는 케이블 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명확한 전략적 비전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으로 가는 길에 대한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지도자"라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ube@**

The Electrical Works

월간 전기및비 7

July 2018

[스페셜스토리] 에너지효율높이는 핵심 'DC배전'이 뜬다

DC배전은 말 그대로 직류부하에 직접적으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디지털기기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된 전력이 직류이기 때문에 교류 인계통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변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직류부하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기기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규모 'DC아일랜드' 진도 서가차도를 가다

태양광에서 받은 DC전력 TV까지 이어져

강원, 충북 지역 시범 도입한 차세대배전정보시스템(NDIS)이 작동 미속...

전기공사 업계의 피해가 늘어

창립 20주년 글로벌기업 도약선포 이종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수요자의 높은 신뢰 받는 전기철도 전문기업 **우민전기(주)**

정기구독 · 광고문의 : 02_2168_1300

The Lighting

7

July 2018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좌담회 누구를 위한 시험인증인가

정부주도형 인증제 불필요한 항목, 절차 많아 민간주도로 효율성 높이고 업계 부담 줄여야

'2030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해 체계적 추진

김영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

동부산 아난티 코브

'바다 위의 성' 애칭 걸맞게 격이 다른 공간으로 완성

2017년 7월 문을 연 '아난티 코브(The Ananti Cove)'는 '바다 위의 성'으로 일컬어진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 단지 내에 축구장 크기 10배가 넘는 7만5837㎡ 부지에 힐튼 부산호텔,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 프라이빗 레지던스 등을 갖추고 있다. 리조트 앞으로 펼쳐진 해안 길이가 1km 이상이며 63빌딩보다 더 큰 건축 연면적(17만8000㎡)은 국내 운영 중인 단일 휴양시설로는 가장 큰 최고급 리조트다.

특화기술·노하우로 아난티 코브 조명공급사로 낙점 **글로벌우원**

케이엔디 디자인으로 승부... 540개 특허 보유한 지식재산권 부자

고태호 태헌 대표 "ROTC동문회는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준 친구"

정기구독 · 광고문의 : 02_2168_1357